시·도의원 5명중 4명 신고 않고 겸직

광주 85%·전남 79%…16개 의회 중 두번째·네번째 높아

각종 협회 고문 등 평균 3.9개 직위…일부의원 10개 이상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의원들이 겸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고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역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내 협회, 재단법인 등에 위원이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21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7개 시·도 광역의회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개인 경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광주시의회 의원 26명 가운데 4명(15.38%), 전남도의회 의원 62명 가운데 13명(20.97%) 만이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신고율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각각 두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미신고 의원들의 홈페이지 개인 경력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의회의 경우 미신고 의원 22명 가운데 17명(77.3%)이, 전남도의회 미신고의원 49명 가운데 11명(22.4%)이 각종 협회, 협의회 등 이익단체, 재단법인 등의 위원, 임원,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들 미신고 의원들은 평균 3.9개의 직위를 겸하고 있었으며, 일부 의원은 10개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수입과 관련 없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각 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원들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광주시의회 A의원은 자신의 연봉을 1800만원이라고 신고하는 등 상당수 의원들이 소득을 축소해 신고했다.

또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전남도의회 B의원은 회사로부터 매달 2800만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세비까지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의원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전국 840명의 광역의원 중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335명(39.9%)으로, 506명(60.1%)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의 겸직 여부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겸직신고와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 의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윤리적 해이는 물론 위법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겸직 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의 날' 기념식에 간 '시장 후보들'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후보들이 21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2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병완, 이용섭,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 나종천 광주시의회 의장 권한대행, 오형국 광주시장 권한대행,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300억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유치

운정동 매립지 26만㎡ 태양광 발전소·체험빌리지 등 조성

광주시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고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으로, 매립지 등 기피 시설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광 등과 연계해 주민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환경기초시설·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 광주시 북구와 강원도 홍천군, 충북 진천군 등 사업지 3곳을 선정했다.

광주시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일대 쓰레기 매립지에 26만 2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2004년 12월 매립이 끝난 곳으로 최종 복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곳에 3년간 총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연간 10억원으로 예상되는 전기판매 수익은 매립지 인근 주민에게 분배된다.

1단계 발전소 건설 사업이 끝나면 성과를 분석해 8MW 규모의 시설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20MW 태양광 발전소는 강원 영월 솔라파크(40MW), 전남 신안 태양광(24MW)에 이은 국내 세 번째 규모다.

정부는 북구 운정동 발전소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체험 빌리지, 5·18 민주묘지와 연계한 인권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해 관광과 접목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6·4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토론 일정

선거	방송일시	중계방송
광주시장	26일 오후 1시 5분 27일 밤 11시 15분	광주MBC 광주MBC/KBS광주
광주시교육감	23일 오전 10시·29일 밤 11시 10분	KBS광주
비례대표 시의원	22일 오후 1시	KBS광주
동구청장	26일 오전 10시	KBS광주
서구청장	23일 밤 11시 20분	광주MBC
남구청장	26일 오후 1시	KBS광주
북구청장	24일 밤 11시 15분	광주MBC
광산구청장	27일 오전 10시	KBS광주
비례대표 도의원	22일 오후 4시 20분 22일 오후 3시	광주MBC 광주MBC
전남도교육감	23일 오전 11시	광주MBC

오늘부터 지방선거 TV토론

광주시장 후보, 26~27일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선거방송토론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6·4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방송토론은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토론회는 지역경제, 사회복지, 교육환경, 지역정체성, 도시환경 등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토론회 불참사실도 고지된다.

22일에는 비례대표 전남도의원 후보자의 TV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23일에는 전남도교육감 후보의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시장 후보 토론회는 26~27일 방송되며, 광주시교육감은 23일과 29일 방송된다.

조운식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장은 "오는 30~31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정당과 후보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 주간을 정한 뒤 집중 방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외국인에 콘도 1인 분양 허용

부동산투자이민제 완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건립되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여수 경도 등의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온 바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인원 제한 규정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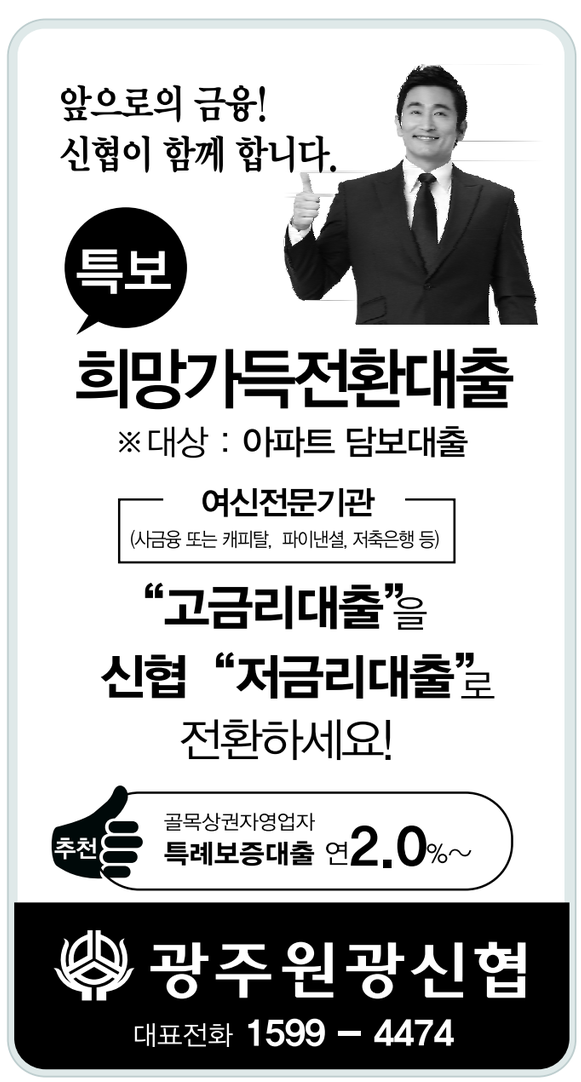
기존 시행령에서는 객실 1개당 분양인원을 5명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1인 분양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 소유를 꺼리는 중국인 등 외국인 특성상 콘도 매입 기피로, 1인 1실을 허용하는 제주도 외에 외국인 투자는 전무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수 경도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투자 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홍도 해수욕장 내일 전국 첫 개장

23일 신안 홍도 해수욕장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연다.

전남도는 21일 "신안 홍도에 이어 24일 완도 예송갯돌 해수욕장, 30일 고흥 나로우주 해수욕장 등이 잇따라 개장해 본격 손님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별도의 개장식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170호)이며 아름다운 서해안의 낙조에 붉게 물들어 '홍도(紅島)'라 불리며 지난해 약 12만명이 방문한 명승지다.

완도 보길도의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예송갯돌 해수욕장은 천연기념물 40호인 예송리 상록수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흥 나로우주 해수욕장은 '나로우주센터'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